

등나무

정 광 호

집안에 등나무를 심으면
되는 일 없이
배배 꼬여든다고
그랬지. 단풍이 자라면
식구들마다 누렇게
부황이 든다나.

아무렴, 등나무 비틀어지듯
꼬이며 그렇게만 서로를
부둥켜안을 수 있다면
누런 금덩이같은
재물 복만 들어온다면

노인네들 옛날 얘기
같지만은 앓더라도, 새삼
욕심 많은 우리네
탐욕만은 못하더라도
푸른 잎 사이로
배이는 綠香
기다리는 마음으로
좁은 마당 한 곁에 심어

단풍마냥 발그레한
웃음으로
휘어져
영키며
부여안은 가슴으로
그렇게만 살아다오
바라며
가꾸는
등나무 한 그루